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새 예배당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임과 나눔의 장

1일 수요일부 예배 후 개장식 예배당 건축에 관심을 모으고 이웃 전도의 기회로

새 예배당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모임과 나눔의 장』이 5월 1일(수) 1부 예배 후(오후 12시 30분)에 개장식을 갖는다.

- ▶ 1일(수) 1부 예배 후(12시 30분) ~ 오후 9시
- ▶ 2일(목) 오전 10시 ~ 오후 8시

『모임과 나눔의 장』은 개장 첫날인 1일에는 수요일부 예배가 마치는 오후 9시까지, 2일(목)에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8시까지 열리며 폐회예배를 드리고 마치게 된다.

▶ 모으고 나누는 목적

우리교회는 그간 활용 가능하나 쓰지 않고 있는 물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요긴하게 쓰일 물건들을 한 곳에 모으고 나누는 『모임과 나눔의 장』을 여러 차례 열어왔다.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에 작게나마 동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했던 1993년도 11월의 『모임과 나눔의 장』에서는 순이익 400 여만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기도 하였다. 제6차 김치신학세미나 기간

중에 벌었던 『모임과 나눔의 장』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목회자들과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작년 6월에는 농어촌 목회자초청세미나와 때를 같이 하여 『모임과 나눔의 장』을 개설함으로써 우리가 지원하는 100여 개 농어촌 교회에 성도들이 모은 물건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번 『모임과 나눔의 장』은 특별히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여전도회 연합회(회장: 이연숙 집사)에서는 “건축기금의 조성보다 더 큰 목적은 6월 6일에 기공예배를 앞두고 이제 본격화 될 새 예배당 건축에 성도들의 관심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려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새 예배당의 벽돌 한 장이라도 내 손으로 쌓는 심정으로 모으고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성도들간에는 교제의 장을 마련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교회의 문을 열고 복

음을 들을 수 기회를 마련해주는 데에도 이번 행사의 큰 목적이 있다. 우리의 이웃에게 이 행사를 알릴 뿐 아니라 수요일, 11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접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접수는 행사 당일에도 계속

여전도회별로 준비한 먹거리가 풍성한 것이 이번 『모임과 나눔의 장』의 특징이기도 하다. 행사가 열리는 양일간 점심과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할 수 있다.

물품은 행사 중에도 계속 접수한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모든 물건은 반드시 수리·세탁 등 정성껏 손질한 후 기증해 줄 것과 재고가 많이 남아 교회에 다시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나누는 일에 동참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 ▼ 장소별 취급품목

장소	취급품목
교회당 앞 (주차공간)	잡화(액세서리, 생필품, 화장품, 신발, 가방, 그릇) · 먹거리 (빈대떡, 호박죽, 떡볶이, 차) · 김치 · 젓갈 · 밀반찬 · 건강식품 자유판매대(위탁판매품)
2층	남성의류, 책, 문구, 테이프, 컴퓨터용품, 의약품, 운동기구, 악기, 장난감,
3층	여성의류 · 아동복(기증품 및 위탁판매품)
옥탑층	육개장, 냉면, 음료
별관	가전제품, 실내장식품, 가구

모으고 나눌 것들

- * 중고물품은 반드시 손질하여 기증합니다.
-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건은 자세한 명세만 적어 내시면 구입을 원하시는 분과 연결해 드립니다.

▶ 의류

- 코트, 바지, 치마, 신사복, 숙녀복, 아동복, 운동복
- 사용하지 않은 양말, 내의, 손수건, 타올
- 장신구(액세서리, 벨트), 구두, 핸드백, 지갑, 운동화, 실내화

▶ 가구

- 소파, 책상, 문갑, 의자, 침대, 식탁, 책장, 장식장, 옷장, 아기침대, 컴퓨터 책상, 거울, 조리식 기구

▶ 가전제품

- TV, 라디오, 오디오, 커피포트, 밥솥,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녹음기, 전기스탠드, 다리미, 스토브,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믹서, 주서, 토스터, 전기장판, 전기담요, 공기청정기

▶ 그릇

- 찻잔, 스푼, 각종 식기, 일회용 그릇, 주방용품

▶ 장난감

- 인형, 놀이기구, 블럭쌓기, 보행기, 세발자전거, 모빌, 미니카

▶ 학용품

- 공책, 연필, 크레파스, 필통, 지우개, 칼, 자, 가위, 풀, 볼펜, 책가방, 신주머니, 망원경, 물감, 붓, 디스크,

▶ 악기

- 바이올린, 멜로디언, 리듬악기, 기타, 크로마하프, 팬플룻, 리코더, 피아노, 첼로, 실로폰, 피리

▶ 서적, 테이프

- 신앙서적, 아동도서, 전집, 사전류, 동화책, 성경책, 찬송가, 설교테이프, 회화테이프, 단행본, 백과사전

▶ 기타

-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면도기, 카메라, 비디오
- 침구(이불, 방석, 등받이, 커튼, 담요)
- 자전거, 운동기구
- 음식물(캔 · 병음료, 인스턴트 식품), 세제, 구두표, 화장품
- 자동차, 개인작품, 개인소장품

창세기 강해



악한 세상

(창세기 39장 13절 - 20절)

이종운 목사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가장 악조건 속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 그 발이 착고에 채이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인 노예(시105:17 - 18)가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 그 처지란 말로 형언키 어려웠을 것입니다.

1. 악한 세상에 사는 성도

보디발의 아내는 악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애증이 교차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모든 불법과 횡포가 난무했고 요셉은 죄인 중 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보디발도 악했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노를 발했습니다(19절). 요셉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운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화를 낸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아마도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20절).

요셉은 무슨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하듯(골3:23 - 24)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한 그는 자기를 감옥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훌륭한 가정에서 총애를 받던 요셉에게 건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비통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예로서 가장 훌륭한 노예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의 신망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되지만 주인의 아내의 음탕한 요구를 거절한 이유로 죄인이 되어 옥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도덕적인 세상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은 잘 살고 의로운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선한 자에게 악한 일이 닥치는 것일까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과 모략을 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있다”고 하시며 하늘에 상이 클 것임을 인해 기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마5:10 - 12). 주님을 따르고 주님처럼 사는 자는 핍박 중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곧 주님의 제자됨과 천국의 상속자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 자기 성품이 조질된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핍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케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핍박은 성도를 성결케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시련은 용광로의 불과 같이 정금을 만들듯 성도를 성결케 합니다(벧전 1:6 - 7). 요셉은 하나님의 큰 뜻을 환난 중에서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은 핍박 중에서 항상 나타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는 영전(靈戰)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세상이 악한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위선, 부정직, 이기심, 거짓, 탐욕으로부터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후 이같은 악은 그대로 폭로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같은 악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또한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셨듯이 성도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요15: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핍박을 받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의 원리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만약 의로운 것과 생계를 연명하는 것 사이에 선택을 한다면 신자는 의의 길을 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순례자 컬럼 ✧

“유산 안남기기 운동”

빈 손으로 온 인생이 공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며 거기에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생들은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줄 알아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 그리고 자손의 번영을 위해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타하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경은 게으른 죄를 악한 죄로 정죄하고 있다. 문제는 주어진 소득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주신 분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데 있다. 각종 범죄와 사회적 병폐의 대부분이 물욕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일각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뜻있는 인사들이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투기와 강탈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한 이 운동이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새가족이 되고 보니

말씀공부로 형제사랑 실천

송두심 (1교구, 장년부)

최고의 형제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성경에서 정확히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삶에서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큰 깨달음과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됩니다.

저는 올해 1월 첫 주에 서울교회에 등록하여 새신자부에서 한달간의 교육을 받은 후 장년부에서 계속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목사님께서 요한일서를 한 구절, 한 구절 풀어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전해옵니다. 최고의 형제 사랑은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서(벧전1:10)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할 수 있도록(벧전3:15)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22년만에 찾은 '내 교회'

송혜숙 (11교구, 찬양대원)

저는 교회에 다닌 지 22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내 교회'를 찾은 느낌입니다.
오늘 환영을 받는 새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 드리며
깊은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알려고 하여도 다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질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물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곤 합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자 서울교회에 등록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제력을 잃고 마음은 공중에 떠서 어느 교회로 가야할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새가족환영회에서 이종윤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장례식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실 때 제 마음에는 굳은 결심이 생겼고,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제 7차 김치신화세미나를 준비하며 ⑦ - 참가국 ④

서사모아

(Western Samoa)



- 면적 - 2,831Km²
- 인구 - 178,000명(1995년도 현재)
- 종족 - 폴리네시아 토착민(98.8%)
- 공용어 - 사모아어, 영어
- 수도 - 아피아
- 경제 - 독립 이후 쇠퇴함. 자급 농업경제. 해외에서 일하는 사모아인들의 송금과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1인당 소득 \$720.
- 정치 - 1900 ~ 1914년 독일의 통치를 거쳐 뉴질랜드와 유엔의 신탁통치가 1962년 독립 때까지 계속됨. 엘리트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가 실시되다가 1991년 국민투표제가 도입됨.
- 종교 -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종종 무시됨. 기독교가 98%(그중 개신교는 53.3%이며 성장률은 0.8%), 로마가톨릭 20.5%, 유사 기독교 23.8%.
- 선교사 -
 - 서사모아 사역 선교사 - 6개 단체의 10명 (인구 17,000명 당 한 명의 선교사)
 - 서사모아 파송 선교사 - 3개 단체의 74명 (개신교인 1,200명 당 한 명의 선교사)

■ 서사모아는 지금

- ① 복음화의 과제 -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1세기가 넘었고 마을마다 교회가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까지는 복음화되지 않았다. 교회는

사교의 유입, 높은 심대의 자살률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서사모아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소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② **물론교의 두드러진 성장** - 물론교에 대한 기독교의 경계심이 없는 편이다. 물론교가 거졌된 종교임을 서사모아의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물론교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 나라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 ③ **복음주의의 성장** - 복음주의의 성장은 주로 「하나님의 성회」를 통해 일어났다. 그러나 여러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며 기독교인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며 주류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부터 개인적으로 압력을 받았다. 복음주의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또한 새로 생긴 교회와 전통적인 교회간의 화목을 위해 기도하자.

④ 복음주의 단체들간의 연합 부족

1991년에 구성된 사모아 복음주의 동맹에 만연된 명목주의를 극복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복음을 널리 퍼도록 기도하자.

⑤ 사모아의 선교사

지난 세기에 서사모아 선교사들은 태평양복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해외에서 사역하는 서사모아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민은 사모아 회중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나 19명의 서사모아 출신 YMCA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섬기고 있다. 그들의 사역과 모교회를 향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⑥ **기독교 라디오와 TV** - 기독교 방송국은 사모아의 40개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한 복음사역이 결실하도록 기도하자.



(★앞 페이지 페이지에서 계속) 사실 '서울교회'는 큰 교회이니 소외감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각오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한 다음 주부터 새가족부에서 공부하면서 사귀게 되었는데 그 때의 느낌은 마치 유치원에 처음 들어간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닌 지 올해로 22년이 됩니

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순수한 마음으로 '내 교회'를 찾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느끼며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고 장년부에서 공부하면서 희미하고 애매했던 말씀이 하나 하나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찬양대에서 함께 봉사하는 저희 부부는 교회에 오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신하게 되

는 것은 서울교회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교회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환영을 받는 새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깊은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 시 4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4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4월의 새가족 *

임미경 남수영 배기원 정승원 나미경 송미영 김순자 정남규
송순옥 정지숙 정준호 임재현 김용남 최학인 최소희 최수정
최광혁 주수정 임선숙 하경숙 오종훈 민순구 이영희 진부민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게시판

5월의 교회행사

- 1~2일 새예배당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음과 나눔의 장』
- 3일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한 특별심야기도회
- 5일 어린이 주일
- 6일 목회자신학세미나
- 10일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한 특별심야기도회
- 12일 아버지주일 · 스승의 주일
- 13일 목회자신학세미나
- 13~14일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 제 3차 총회
- 20일 목회자신학세미나
- 21~31일 제 7차 김치(KIMCHI)신학세미나
- 21~31일 오세아니아 복음화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 26일 5월 새가족환영회
- 27일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종강
- 30일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 폐회예배

교우 동정

* 김원중 · 이갑연 성도(1교구, 논현 다락방) 가정은 4월 24일(수) 득녀하였다.

* 황재복 집사(1교구, 논현 다락방)는 4월 24일(수) 논현동에 '상문학원'을 개원하였다.

길동무

사랑의 향기는 봄바람에 날리고...

○... 여의도 길은 요즘 늘 미어진다. 만개한 벚꽃이 그 화사함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따사로움과 나른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수고도 더하도록 하는 게 봄인가 보다.



○... 우리교회는 그 화사한 봄의 한가운데 놓인 5월을 모음과 나눔으로 시작한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도 달고 있다. 실은 모든 성도들이 이 장에서 참여와 교제의 시간을 갖는 데 또다른 맛이 있다. 우리 교회는 「모음과 나눔의 장」에서 참여의 향기로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새 예배당의 모습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혹 지나는 길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은 들러 짜릿한 서울교회의 향기에 취하는 시간이 되길...

○... 또 혼자서만 즐기 말고 두어 사람 권하여 함께 와서 보고 내놓고 찾아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⑧ 5월 13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타종교와의 대화 (전호진 박사)
- ⑦ 5월 20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대중문화와 교회 (전대련 박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모음과 나눔의 장을 통해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2. 새가족들의 신앙성장과 교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3.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하여
4.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와질 수 있도록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